

이용대, 코리아오픈 V4 도전

유연성과 배드민턴 남북 세계랭킹 1위 슈퍼시리즈 2개 대회 연속 금메달 노려

3번째 파트너와 함께 4번째 코리아오픈 우승을 노린다. 한국배드민턴의 간판스타 이용대(27·삼성전기)가 마지막 올림픽 파트너인 유연성(29·수원시청)과 함께 2015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상금 총액 60만달러) 남자복식 정상에 도전한다.

15일 개막하는 코리아오픈은 세계에 12개밖에 없는 최고 수준의 대회로, 세계랭킹 1~10위가 의무적으로 참가해야 하는 권위 있는 배드민턴 축제다. 이용대에게도 코리아오픈은 매우 의미가 큰 대회다. 이득춘 배드민턴국가대표팀 감독은 14일 “올림픽 도전은 흐름이 매우 중요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에서 계속 정상을 지키는 흐름을 올림피아까지 이어가야 한다. 내년 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을 앞두고 이용대-유연성이 국내 팬들 앞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

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용대는 19세였던 2007년 정재성(현 삼성전기 코치)과 함께 코리아오픈 남자복식에서 첫 우승을 차지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대회를 제패한 자신감은 이듬해 베이징올림픽 혼합복식 금메달로 이어졌다. 이용대는 2012런던올림픽을 앞둔 2011년 다시 한번 코리아오픈 정상에 섰다. 그리고 정재성의 마지막 올림픽 도전이었던 런던에서 값진 동메달을 함께 목에 걸었다.

이용대는 정재성의 은퇴 이후 첫 파트너였던 고성현(김천시청)과 함께 2013년 코리아오픈 남자복식 우승을 달성했다. 지난해는 입상에 실패했지만, 유연성과 함께 2년여 손발을 맞추면서 다시 세계랭킹 1위를 질주하고 있다.

이용대-유연성은 13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린 2015 일본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 남자복식에서 세계랭킹 4위인 중국의 후아이펑-장난을 2-0(21-19 29-27)으로 누르고 우승했다. 코리아오픈까지 석



배드민턴 남자복식 세계랭킹 1위 이용대-유연성(왼쪽부터)이 13일 일본 도쿄 메트로폴리탄에서 열린 2015 일본오픈 배드민턴 슈퍼시리즈에서 우승한 뒤 시상대에 올랐다. 도쿄 | AP뉴시스

권하면 내년 리우올림픽을 앞두고 슈퍼시리즈 2개 대회 연속 금메달로 기세를 올리게 된다.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지역발전·질적 성장...에비앙챔피언십이 주는 교훈

주요로 기자의 여기는 에비앙

프랑스의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에비앙챔피언십은 22년이라는 역사를 거치면서 전 세계 골프팬들의 주목을 받는 빅 이벤트가 됐다. 무엇이 에비앙챔피언십을 세계적인 대회로 만들었을까.

프랑스 에비앙 르뱅 지역은 대회 기간 동안 축제 분위기다. 골프장은 물론 인근 호텔과 음식점, 심지어 길거리까지 핑크색(에비앙 생수를 상징하는 색)으로 물든다. 이런 분위기는 선수들에게도 전달돼 핑크색 옷이나 신발, 모자를 쓴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다. 에비앙챔피언십은 프랑스의 식음료 기업인 다농 그룹에서 개최한다. 기업이 홍보를 목적으로 골프대회를 여는 건 우리와 같다. 그러나 에비앙챔피언십에는 한 가지 목적이 더 있다. 바로 지역발전을 위한 기여와 노력이다.

자크 분게르트 에비앙챔피언십조직위원회 부위원장은 “우리는 다양하고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으며 조금씩 그 효과를 보고 있다”면서 “지역을 찾는 관광객도 늘어나고 골퍼들도 찾아오고 있다. 또 기업의 인지도는 물론 지역의 이미지를 높이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주일 동안 열리는 골프대회 하

나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레만호 주변에 위치한 에비앙 르뱅은 인구 1만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다. 그러나 작년 이 대회를 보기 위해 3만7200명이 찾았다. 수지로 파악된 경제효과는 없다. 그러나 대회 기간 음식점은 손님으로 북적이고 호텔도 빈방이 없을 정도다. 한국에서 온 매니지먼트사 직원들은 인근에 호텔을 구하지 못해 20분 정도 떨어진 지역에 숙소를 마련해야만 했다. 대회가 끝난 뒤에도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분게르트 부위원장은 “얼마 전에는 한국인 15~20명 정도가 전용 비행기를 타고 스위스 제네바를 통해 우리 골프장을 찾은 적이 있다. 그만큼 우리 골프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고 최근 일화를 소개했다.

퍼블릭으로 운영되는 에비앙골프장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라운드할 수 있다. 이용료는 250유로(약 33만원)로 다소 비싼 편이지만 인터넷을 통해 예약할 수 있어 골퍼를 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성공 뒤엔 많은 노력이 숨어 있다. 대회를 위해 일주일 동안 동원되는 스태프는 2000명이 넘는다. 경기 진행요원도 200명이나 된다.

대행사를 쓰지 않고 대회를 직접 운영하

며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매년 같은 코스에서 대회가 열린다보니 해마다 조금씩 변화를 준다. 3년 전 대대적으로 코스를 바꿨고, 올해는 12번과 14번홀 티잉 그라운드를 뒤로 옮겼다. 그런 노하우가 쌓여 대회의 수준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양희영은 “다른 메이저대회와는 또 다른 분위기다. 이곳에 오면 편하고 좋다”고 말했다.

선수들을 위한 배려 또한 세심하다. 에비앙챔피언십에는 최근 들어 많은 한국선수들이 출전하고 있으며, 신지애(2010년), 박인비(2012년), 김효주(2014년)가 우승했다. 이런 변화에 맞춰 에비앙챔피언십은 한국선수들을 위한 특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식당에 감자를 준비해 줬고, 선수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통역요원도 배치했다.

국내에선 여자골프의 인기가 높다. 대회 수도 늘어 30개에 육박한다. 그러나 양적인 팽창에 비해 질적 향상은 아직 세계 수준과 격차가 크다. 특히 플레이어의 질을 높이는 코스 상태와 경기 진행은 갈 길이 멀다. 또 갤러리를 위한 시설도 많이 부족하다.

에비앙챔피언십은 2013년부터 5번째 메이저대회로 승격됐다. 논란도 있었지만 3년 만에 훌륭한 메이저대회로 자리 잡았다. 그런 평가를 들을 만 했다.

“소렌스탐처럼 메이저 10승” 박인비, 새 목표 생겼다

LPGA투어 통산 16승 메이저 7승 톨모델 소렌스탐 세운 대기록 도전

‘커리어 그랜드슬램’ 박인비(27)에게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과 함께 메이저 10승 달성이라는 목표가 추가됐다.

박인비는 13일(한국시간) 프랑스 에비앙 르뱅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마지막 메이저대회 에비앙챔피언십 3라운드 끝난 뒤 특별한 상을 받았다. 한 해 메이저대회에서 가장 뛰어난 성적을 거둔 선수에게 주어지는 ‘안니카 메이저 어워드’를 수상했다. 3라운드 후 열린 시상식은 박인비를 위한 무대였다. 이 자리에는 LPGA투어 마이크 완 커미셔너를 비롯해 에비앙챔피언십 관계자와 후원사인 볼렉스 부회장, 로라 데이비스(잉글랜드)와 줄리 잉스터(미국) 등 미국과 유럽을 대표하는 베테랑 선수, 그리고 LPGA 통산 72승을 거둔 뒤 2008년 은퇴한 안니카 소렌스탐(스웨덴)이 참석했다.

시상식은 화려했다. 오프닝 무대는 올해 열린 메이저대회 우승의 순간을 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어 수상자 박인비와 시상자 안니카 소렌스탐이 무대 중앙에 섰다. 그리고 박인비와 소렌스탐의 메이저 우승 장면이 영상을 통해 공개됐다. 박인비가 소렌스탐과 비교되기에 아직 갈 길이 멀다. 소렌스탐은 여자골프의 전설적인 존재다. 1994년 데뷔해 72승(역대 3위)을 기록했다. 통산 16승을 거둔 박인비조차 비교될 수 없는 대



박인비가 메이저 10승 달성이라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뛰기 시작했다. 10일(한국시간) LPGA투어 에비앙챔피언십 1라운드 18번홀에서 아이언 샷을 한 뒤 공을 바라보고 있는 박인비. 에비앙(프랑스) | AP뉴시스

기적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올해의 선수를 8번(최다 수상)이나 차지했고, 베어트로피(최저타수상)도 6차례나 수상했다. 그런 소렌스탐은 박인비에게도 톨모델이었다.

박인비는 아직은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며 부끄러워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목표가 마음속에 새겼다. 소렌스탐이 세운 대기록을 뛰어 넘을 수는 없지만, 소렌스탐

의 메이저 10승에는 충분히 다가설 수 있다. 박인비는 메이저 7승을 기록 중이다. 3승만 더 채우면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7월 커리어 그랜드슬램 달성 이후 박인비에겐 목표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 마음을 다잡았다. 메이저 10승을 향해 뛰기 시작한 것이다.

에비앙(프랑스) |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
편집 | 정용문 기자 sadzoo@donga.com



※ '돌직구'는 'sportsdonga.com'에서 첫 회 부터 보실 수 있습니다.